

전남도,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만족 높아

도내 9개 시군 13개 해수욕장 예약시스템 구축

재방문 의사 유도하여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해수욕장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완화해 코로나19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지역 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도내 9개 시군 13개 해수욕장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했으며, 발열 체크한 후 이상 없는 사람만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총 11억 9천 600만 원이 투입됐다.

성과평가는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에 착수, DB 분

석과 문헌 조사, 설문지 등 자료통계 산출 기법이 활용됐다.

이용객 인식 조사를 위해 방문객 1천 283명과 지역주민 278명, 종사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역 신뢰도를 높였으며,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통한 사회적 적정거리 유지 및 인구 밀집 분산 유도 효과를 중점 검증했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백사장 내 이용객이 느끼는 혼잡도와 위험도를 낮춰 코로나19 방역 효과뿐 아니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의사를 유도해 해수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성과평가에서 향후 해수욕장 운영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예약제 운영 개선방안이 제시돼 전국 해수욕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전라남도는 사전예약제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국민 확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해양수산부와 다른 시·도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전예약제' 운영기간 중 16만 7천 명이 도내 안심해수욕장을 이용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만 6천 원으로 약 160억 원을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충남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 시행한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주요 외신인 BBC, NHK에서 세계적인 방역 관련 모범사례로 보도돼 전남의 하계휴양지 운영 위상을 제고했다"며 "감염병 발생 시 해양 관광지 운영 정책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동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광주 동구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65세 이상)·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경로당 타일벽화 조성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가 학생과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모아 서구 제1호 치매안심마을인 상무2동 내 3개소 경로당(상무·쌍학·이화) 외벽에 타일 벽화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담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줄임말인 '소담소담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추진됐다.

학생들의 그림과 어르신들의 글로 꾸며진 타일을 낀 경로당 외벽에 붙임으로써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벽화에 들어간 그림은 지난해 11월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 100여명과 상무중·효광중 학생 450여명 등 550여명이 타일에 직접 쓰고 그린 작품들이다.

남구 "1월말까지 등록면허세 꼭 납부하세요"

"1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붙습니다."

광주 남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남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및 수납에 나섰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건수 및 금액은 1만 6,662건에 6억4,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북구, 민원서비스 수준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

광주 북구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직접 접하게 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4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나눴다.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10%에 속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산구, 1회용품 안 쓴 시민들 활동수기집 발간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 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활동수기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광산구는 자원순환 교육·캠페인의 하나로 100명의 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을 모집·운영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시민도전단은 SNS 발대식,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수기집은 지난해 9~11월 비닐봉투, 1회용 컵·빨대·그릇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보면 시민도전단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울러 도전에서 느낀 점, 아쉬운 점 등도 기록돼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임형택기자

전남도, 지난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역대 최대' 성과

전라남도가 민선 7기 들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 최대 면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에도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집계 결과, 전남지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1만 5천 722ha보다 8천 167ha 증가한 2만 3천 899ha로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만 8천 697ha의 62%에 해당된다.

특히 도내 전체 인증면적 4만 6천 41ha 중 유기농이 51.8%인 2만 3천 899ha로 무농약 인증면적 2만 2천 152ha를 앞질렀다.

소득작목인 과수·채소 인증면적도 크게 늘었다. 과수의 경우 2019년보다 93ha가 증가한 1천 33ha, 채소는 무려 508ha가 증가한 1천 292ha로 조사돼 품목다양화의 양상을 보였다.

유기농 중심의 품질고급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농업과에서 식량원에

과를 분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 ▲전국 최초 유기농 명인 지정 ▲유기농 지속직불금 및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정보'에서도 유기농산물의 거래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1.5~2.5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유기농 쌀은 관행 상품보다 2.5배 높은 10kg당 5만 8천 39원, 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1.5배 높은 1kg 당 7천 159원, 토마토 등 채소류는 1.9배 높은 1kg 당 9천 807원으로 조사됐다.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1만 8천(630억 원)이 서울 등 약 6천여 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고, 전남 도내 모든 학교에 연간 3천 362(20억 원)의 유기농 쌀이 공급되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한몫 했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실현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올해 도시숲 25곳 조성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일환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예산 26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25곳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5일 '2021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조사 후 제출한 사업 대상지 39곳 중 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등 녹지한편늘리기 사업 15곳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 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2곳 ▲월곡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월곡동 681-9번지) 등 녹도조성 사업 2곳 ▲서광주로(금호저수지~서광주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1곳 ▲대동고교 등 학교 내 미래숲(명상숲) 조성사업 5곳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도시림 조성·관리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성·사업규모의 적정성·사후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앞으로 각 자치구는 대상지별

현장조사와 설계준비 등을 거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도시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도심 내 자투리공간 녹지한편 늘리기, 열린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보행자도로 녹지공간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숲길 조성, 학교 숲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4년차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휴식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국인문진흥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천으로 기쁨과 근로지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개인 이익보다 먼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고소득층	1.1배	240,833원
4분위	1.7배	125,531원	
3분위	2.1배	79,147원	
2분위	2.7배	48,103원	
1분위	저소득층	5.3배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의견 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 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시행령 제4조2(발전사업에대한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600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1. 12
 3.사업운영기간 : 2021.12~2041.11(20년예정)
 4.의견제출기간및방법 : 2021.01.06~2021.01.15까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길 171-37로 우편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거나 이메일 wjl2000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명	신청인	용량	위치 및 면적
발경발전소	이우정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주황발전소	이미현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노랑발전소	이완진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피랑발전소	이남석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초록발전소	이민희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보라발전소	유나영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